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선호 물가지표 하락…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 Bloomberg: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준 통화 정책 성과 있다”
- CNBC: IMF, “미국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고금리 유지해야”

[미국 금융]
- Bloomberg: 6월 국채가, 올해 들어 최고의 랠리
- Bloomberg: 나스닥 100 연준 금리 인하 예상에 20,000돌파
- WSJ: AI 열풍, 상반기 증시 상승 주도

[미 대선]
- Bloomberg: 바이든의 재앙적인 토론으로 후보 자격성 크게 의심돼

[주택]
- WSJ: 얼어 붙은 주택 시장, 미국 경제 흔들어

[에너지]
- Bloomberg: 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 두 달 만에 최고치
- CNBC: 서던 컴퍼니 CEO, 미국 내 원자력 발전 확대 강조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약국 체인들, 처방약 환급률 하락으로 수익 감소
- WSJ: 우버·리프트,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전자에게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제공 합의
- Bloomberg: 타겟, 50달러 이상 도난 사건에도 적극 대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Favored Price Gauge Slows, Supporting Case for Rate Cut
연준 선호 물가 지표 하락…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5월에 크게 하락해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은 4월에 비해 0.1% 상승해 지난 6개월간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치를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하면 0.08%로 지난 2020년 11월 이래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이러한 수치는 오늘 금요일 연방 경제분석국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6% 상승해 지난 2021년 초 이래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인플레 연동 소비자 지출은 4월에 위축됐으나 5월에는 상승했는데 이는 상품이 주도했으며 소득 상승도 부분적으로 이에 한몫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Daly Says Latest Data Show Monetary Policy Is Working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준 통화 정책 성과 있다"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Mary Daly는 금요일 발표된 물가 지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 말하기는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 그는 CNBC와의 기자 회견에서 "현재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출도 줄고, 노동시장도 둔화되고, 인플레도 둔화되고 있다"며 이는 정책이 작동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은 향후에 경제지표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향후 수개월간 펼쳐질 수 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강조했다. 예컨데 인플레가 예상보다 둔화세가 적을 경우 연준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Bloomberg 기사

CNBC: IMF says Fed should hold interest rates where they are until 'at least' end of year
IMF, "미국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고금리 유지해야"

- IMF 사무총장인 Kristalina Georgieva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말까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G20중에 유일하게 성장세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강한 성장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 그는 "우리는 미국이 중요한 인플레 상승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런 리스크를 감안할때 연준이 올해 하반기 까지 적어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끝으로 그는 미국 인플레가 둔화될 것이며 연준이 신중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onds Set for Biggest Monthly Gain in 2024 as Inflation Ebbs
6월 국채가, 올해 들어 최고의 랠리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크게 하락해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미 국채는 6월에 올해 가장 높은 랠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금요일 10년물 국채는 2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진 4.26%에서 거래 중이다. 이달 들어 23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해 작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폭을 기록했다.
- 2년물의 경우 국채 수익률은 2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68%를 기록하고 있다.
- 스왑 트레이더들은 올해 11월까지 0.25%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asdaq 100 Tops 20,000 Mark on Fed-Cut Wagers: Markets Wrap
나스닥 100 연준 금리 인하 예상에 20,000돌파

-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오늘 금요일 물가 지표 발표로 주식과 국채는 상승하고 있다.
- 주가는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S&P 500은 5,500선을 돌파하고 있고 나스닥 100은 20,000을 돌파하면서 6월에 올해 들어 최고의 랠리를 기록 중이다.
-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 발표된 개인소비지출의 약세 현상은 안도의 소식이라면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려면 추가적인 인플레와 노동시장 둔화 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AI Frenzy Propels Stocks to Monster First Half
AI 열풍, 상반기 증시 상승 주도

- 주식 상승을 주도한 AI 열풍이 둔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작년 대부분의 기간처럼 투자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인공지능 붐이 막 시작되었다는 데 베팅을 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주가가 1백50% 치솟아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 세계 1위를 잠시 기록하기도 했다.

- 엔비디아의 성과는 올해 S&P 500이 15% 상승하도록 주도했고 이러한 상승세는 작년 상반기에도 비슷했다.
- 특이한 점은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 지표로 인해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희망이 꺾이었는데도 블구하고 S&P 500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WSJ 기사

[미 대선]

Bloomberg: Biden's Disastrous Debate Accelerates Doubts Over Candidacy
바이든의 재앙적인 토론으로 후보 자격성 크게 의심돼

- 어제 목요일 이루어진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의 1차 토론회에서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의 목기침과 어눌한 말, 그리고 논리 정연하지 못한 말과 여러 차례 정확하지 않은 발언 등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후보를 바꾸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였던 Kate Bedingfield는 바이든이 실망스러운 토론을 했다며 "바이든은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 반면에 여론조사에서 적지만 앞선 지지율을 꾸준히 보여주었던 트럼프는 이날 발표에서 과장된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에 재임할 수 있는 선호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WSJ: America's Frozen Housing Market Is Warping the Economy
얼어 붙은 주택 시장, 미국 경제 흔들어

- 초저금리의 모기지율로 주택을 구매했던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다. 집을 팔고 이사할 경우 높은 모기지율로 주택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건 스탠리의 주택 전략가인 Jim Egan에 따르면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2/3는 이자율이 4% 미만이다.
- 이러한 주택 소유자가 이사를 하려면 30년 만기 신규 모기지에 7%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 가장 큰 격차이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에 나오는 주택 수가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구매자의 선택 폭이 줄어들고 있다.

- 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만 달러인 가구는 현재 매물로 나온 주택의 37%만 구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62%여야 한다.
- 얼어붙은 주택 시장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판매와 관련된 지출이 감소하면서 사람들은 집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데 덜 지출하고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 등 거래의 물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NAHB)는 이러한 활동이 신규 주택 건설과 함께 일반적으로 미국 생산량의 3~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Hits Two-Month High as Mideast Tensions Rattle Market
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 두 달 만에 최고치

-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 경제 대국들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가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각각 배럴당 87달러와 82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며 4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의 교전, 예멘 후티 반군의 상업용 선박 공격 강화 등 중동 지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무장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은 최근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금요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개 업체 PVM의 애널리스트 Tamas Varga는 리서치 노트에서 “긴축 시장에 대한 우려와 중동 불안감이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Bloomberg 기사

CNBC: U.S. needs major nuclear power expansion to meet rising electricity demand, Southern Company CEO says
서던 컴퍼니 CEO, 미국 내 원자력 발전 확대 강조

- 미국의 에너지 기업 서던 컴퍼니(Southern Company)의 CEO인 Chris Womack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기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Womack은 뉴욕에서 열린 로이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 것"이라며 10기가와트 이상의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 10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그는 서던 컴퍼니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전력 수요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던 전력 성장률을 보인 서던 컴퍼니는 이제 수요가 3~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는 인공지능, 대규모 학습 모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와 동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 제조업의 온쇼어링 등이 꼽힌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 Business: Why Walgreens, CVS and Rite Aid are closing thousands of drug stores across America
약국 체인들, 처방약 환급률 하락으로 수익 감소

- 미국의 드럭스토워 체인 월그린(Walgreens)이 미국 내 약 8,600개 매장 중 상당수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그린의 CEO 팀 웬트워스는 약 25%의 매장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도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매장 폐쇄는 수년간의 확장 이후 드럭스토어 체인들이 겪고 있는 경기 침체의 일부로, 월그린은 2019년에 200개, 작년에 150개의 매장을 이미 폐쇄한 바 있다.
- 드럭스토어 체인들은 처방약에 대한 환급해 주는 비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은 처방전 조제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몇 년간 환급률이 낮아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해당 사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 처방약 가격과 약국이 받는 대금은 주로 제약 제조업체와 보험사 간 리베이트 협상을 담당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PBM)에 의해 결정된다. 애널리스트 Elizabeth Anderson은 PBM이 자체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환급률을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업계에서는 PBM이 업계에 대한 통제권이 너무 커서 약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CNN Business 기사

WSJ: Uber, Lyft Agree to Minimum Wage, Other Benefits for Drivers in Massachusetts
우버·리프트,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전자에게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제공 합의

- 우버와 리프트가 매사추세츠주에서 운전자에게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를 포함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주 법무부 장관실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운전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 그동안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여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운행 시간당 32.50달러의 최저 수입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유급 병가를 포함한 일부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 Andrea Joy Campbell은 성명을 통해 이 회사들이 운전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기본적인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로 우버와 리프트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합의는 워싱턴, 미네소타 등 여러 미국 주에서 차량 호출 앱 운전자를 위한 최저임금 법을 제정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각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Bloomberg: Target Lowers Bar for Workers to Stop Thefts to as Little as $50
타겟, 50달러 이상 도난 사건에도 적극 대처

- 타겟(Target)은 매장 절도를 억제하기 위해 최소 50달러 상당의 도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이전 기준인 100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올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도난,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한 재고 손실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밝힌 타겟은 올해에는 이러한 손실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타겟 대변인은 매장 낸 조치와 정책 입안자 및 커뮤니티의 노력을 통해 도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 회사는 팀과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쇼핑객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연준 보스틱 "4분기에 금리 한차례 내릴 것" 전망

보먼 "인플레 압력 여전히 높아 금리 내릴 상황 아냐"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4분기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보스틱 총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연준 발표문에서 4월과 5월 지표에서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2%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는 '어렴풋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일자리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 관련 리스크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앞으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